



박 실

국회환경특위장
민주당 국회의원

물과 공기와 교육

미 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소비가 미덕이라는 시대는 지났다. 50년대말부터 절정기의 미국식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산물이었다.

이것은 미국 혁명의 정신적 지주였던 청교도적 윤리의 일대 수정이었다. 교과서에도 절약과 검소를 미덕으로 추켜세웠던 부분이 지워져야 했다. 엉뚱하게도 이런 영향은 한국에도 파급되었던 것이다.

모든 매스컴과 경제추체들은 이 소비를 증가시키는 전략과 캠페인에 열을 올렸다. 그래서 창안해낸 것이 이른바 신용증 사회, 크레디드 카드 시대였다. 뭐든지 외상으로 마구 갈겨쓰지 않고는 견디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찾아왔다.

30년대 대공황을 체험한 쓰라린 과거로 볼때 유효수요를 창출해 내기위한 케인스類의 발상이었다.

이런 소비풍조와 방만한 국가운영이 냉전이란 대결체제와 군비경쟁, 그리고 세계의 경찰국가로 自他가 인정하던 미국의 과도한 대외관계의 개입등이 겹쳐서 오늘날 미국은 그 규모에 있어서 세계에서 제일가는 부채국가, 적자국가가 되었다.

미국의 경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가 어렵고 실업이 늘어나고 도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니 이제 미국은 불황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결국 클린턴 정부에 미국국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지만 성급한 클린턴 정부로서는 국제무역질서를 위협할 뿐 아직 이렇다할 묘수를 내보이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쯤되니 미국에서도 소비가 미덕이라는 생각은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 자원절약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형세아래서 물과 공기가 무한한 자유재인가라는 명제를 들고 나온 사람이 앨·고어 부통령이다. 그의 정책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대미교역, 즉 생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환경보존과 관련하여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리에게 관심을 끌기에 족한 것은 이른바 『물과 공기는 무한정으로 존재하고 있는 비용이 들지 않는 자연재화(Virgin Materials)인가』라는 질문이다. 즉 물과 공기가 공짜라는 이제까지의 고정관념이 시정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확실히 그럴듯한 생각이고 우리가 현실로 당면하는 문제들이다.

신선한 공기, 맑은 물은 이제 더 이상 공짜가 아니요 무한정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점에서 출발하면 경제학의 가정들과 관념도 바뀌어야 한다. 즉 경제학에 환경문제, 생태계의 보전이란 새로운 관념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생산과 소비관계, 국민소득개념도 바뀌어야 한다. 모든 재화는 완전 소비를 전제로 생산되어야 하며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생기는 폐기물, 쓰레기도 처리되는 비용이 감안되어야 하고 그런 비용은 당연히 가격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해, 폐기물등 환경에 미치는 피해도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

으로의 경제학은 생태계문제가 가미된 생태경제학(Ecology→Economics)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물과 공기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보아야 한다.

우리의 서울이 대기오염도에 있어서 멕시코시티에 다음 가는 수준으로 심각하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분석도 외신이 전하고 있다.

실제 멕시코수도는 해발 2,300미터의 분지여서 지형적으로도 공기가 희박할 뿐만 아니라 공기의 유통이 적고 연료정책이 방만하여 각종 차량과 공장에서 뿜어내는 아황산 가스등 오염물질이 방치되어 있어서 눈이 아프고 숨이차고 목이 붓는다 한다. 심한 날에는 참새가 떨어져 죽는 것을 목격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 넓은 공원에 수목은 그런 대로 울창하나 새를 보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공해가 심할 때는 학교가 쉬고 공장이 정지되고 차량통행이 통제된다. 이런 멕시코시에 다음가는 심각한 대기오염도시가 우리의 서울이라는 것은 소름끼칠 일이다.

공기는 그렇다치고 물의 사정은 어떤가. 수질의 문제에 앞서 이제는 줄어드는 담수의 절대량이 더 걱정스러운 지경이 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현상으로 적설량이 줄어들고 있고 실제 서울에서도 눈을 보기가 어려워 졌다.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진다. 표토의 담수(江)와 혼합되어 마실 수 있는 양을 줄인다. 표토의 담수가 줄어든니 삼림이 훼손되고 토양의 수분함유와 저장능력이 감소된다. 이런 악순환과 연쇄반응이 계속되면 대지는 사막화한다. 여기에 과학문명이 만들어 놓는 각종화학물질과 化石資源(석유)등의 남용으로 수질악화는 가속화된다.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물의 소비는 날로 증가되고 있다. 물이 마르면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는 끝장이다.

그런데 그릇된 교육으로 물과 공기는 아직도 무한정으로 존재해 있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인식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앞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의 원가에 물값과 공기값도 계산하고 폐기처리비용도 물리겠다고 버리고 있다. 이렇게 원가계산이 높아지면 우리 상품이 진출할 길은 더욱 어려워진다.

절약과 완전소비의 필요성이나 환경개선에 최소의 비용은 역시 교육을 통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라도 절약과 근검의 옛정신으로 돌아가야 되고 교육에서 이 길을 속히 찾아야 한다.

다행히 우리정부도 이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환경관계 교과과정과 교과서 개편 작업을 서두르려 하고 있다.

환경교육의 방법, 교과서 개편방향등은 이 방면의 전문가들의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환경문제의 인식과 교육은 전문지식보다 근검절약하는 우리의 미풍을 살리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연보호 캠페인도 우선 완전 소비로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생활패턴에서 찾아야 한다. 가난했던 우리들의 과거로 되돌아 가야 한다. 기위입고 빨아 입고 싹싹 굵어 먹던 그 시절의 정신이 살아 나야한다고 생각한다.

外華內貧, 虛禮虛飾으로 가득찬 생활환경부터 개선해야 된다. 이런 의식혁명부터 이뤄내야 소위 「한국병」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오만한 서구물질문명의 폐해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은 결국 자연과 분리될 수 없는 자연의 일부라는 동양적 선인의 생각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 환경문제의 인식과 교육은 전문지식보다 근검절약하는 우리의 미풍을 살리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연보호 캠페인도 우선 완전 소비로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생활패턴에서 찾아야 한다. ㉞